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 성 열†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현실의 기저에 존재하는 한국사람들의 교육의식과 현재의 상황이 한국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집합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내부귀인할 확률이 크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 즉 교육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유교적 전통과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대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의식은 학생들의 자율적 동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을 고사케 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현재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생들과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두에게 한(恨)으로 지각될 소지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을 극복하는 한국의 문화적 기제인 신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교육장면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자 및 학부모들이 모두 신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 교육현실, 심리적 기제, 한(恨), 신명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E-mail : syhan@korea.ac.kr

한국의 교육현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교육의 성취는 눈부신 바가 있다. 세계 1, 2위권의 높은 IQ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은 각종 학업능력 평가에서 세계 수위권을 석권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지의 유학생 수 역시도 다른 여러 나라들을 능가한다. 1950년대의 세계 최빈국에서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규모 세계 12, 3위의 무역대국을 이루어 낸 데에는 한국의 교육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한국 교육의 외형적 성과의 한편에는 그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은 과열양상의 교육열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2001년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0조원 정도였으나 2003년 현재에는 13조 6000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연수나 유학 등으로 인한 지출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9월 17일 크레디리요네 증권(CLSA)이 한, 중, 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의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1500가구)은 가계 지출의 22%(중산층 기준 매달 89만원)를 자녀교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이 재정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응답한 사람들이 48%에 달했다. 이처럼 늘어가는 자녀교육비의 부담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정된

지위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신분상승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분야에만 인재와 돈이 몰리게 되고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학문들, 특히 기초학문들은 질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악영향이다. 자녀의 동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모의 동기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박탈하며, 줄 세우기 식의 교육과 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한다. 이러한 교육의 피해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던지는 부모의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일은 예삿일이 되었고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자녀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러기아빠로 대표되는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이민 등으로 분리되거나 해체되는 가족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 교육현실의 특수성

각계에서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변화나 입시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의 교육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과거의 예에서 드러났다. 현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열 그 자체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 현상이다. 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뒷 세대에게 보다 나은 사회적 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입신양

명이라는 유교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 중, 일의 동아시아 3국은 물론,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과 미국, 호주 등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자녀교육의 열기는 뜨겁다.

그러나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본 교육열 현상은 나라마다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교육열 현상 자체는 보편적이라는 가정 하에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의 교육열 현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종각, 2003)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열 현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자녀의 교육을 통해 부모의 한을 대리적으로 해소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의 교육열을 분석한 추병식(1999)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의 부모세대는 한국의 과거 경제성장을 책임져오며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이후, 자신의 자녀들은 자신들과 같이 ‘못 배운 한’을 갖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살아 있으며, 특히 강한 부자중심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정순우, 1999). 이러한 부자중심주의 문화는 조상-부모-자녀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데, 이는 교육의 문제가 어느 한 세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대에서 고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후대의 자손들은 선대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무감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입신양명케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되며 과거의 가족적 전통이 많이 해체된 지금도 이러한 의식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정들이 종종 발견된다. 적어도 가족

의 가치관이 자녀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미숙, 1993).

둘째, 교육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교육열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보여지고, 일본의 교육열 현상은 어느 정도 사회계층의 제한을 받는데 비해, 한국의 교육열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계층과 무관하게 나타난다(이종각, 2003). 즉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현재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이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 교육열 현상의 첫 번째 특징, 즉 부모의 한을 대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 세대에서 경험한 차별감, 부당감, 불평등감의 원인이 낮은 사회적 지위라고 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 세대에서는 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 교육현실의 심리적 기제

이러한 한국 교육열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실패(성적, 낮은 사회적 지위 등)를 노력으로 귀인하는 집합주의 문화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권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학생들이 실패에 대해서 보다 노력에 귀인하는 반면, 미국의 학생들은 성공에 대해 보다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Armbrister, 2002).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황과 관계의 가변성에 따라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

은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게 된다.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 사회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황과 관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정된 능력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조금호, 1996).

따라서 집합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자기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의 양을 늘리는 길 밖에 없다. 즉,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은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통로(교육)를 이용하는 것이다.

교육열의 한국적 특수성은 또한 부당감과 차별감(억울함)을 쉽게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높은 수준의 평등을 원하는 한국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평등주의(송호근, 2006)의 특성은 그것이 매우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점이다. 강준만(2006)은 이러한 한국사람들의 평등주의는 ‘자식교육 잘 시켜 신분상승을 꾀해 보자는 식’의 개인적 평등주의임을 강조한다. 즉, 남과 차별되기 싫어하는 한국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자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려는 왜곡된 교육열로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람들의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선 한국사람들이 ‘한(恨)’을 잘 경험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이 한국인들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이면서 한국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는 것은 보편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가세 히데아키, 1988; 김병익, 1994; 김열규, 1987; 문순태, 1988, 천이두, 1993).

최상진(2000)에 따르면, 한은 첫째,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 둘째, 필요한 어떤 것이 결핍되었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셋째, 자기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한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세 경우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느끼게 되는 것이 한의 감정이다.

Langer(1975)는 다양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통제감의 욕구(need for control)가 강하게 있음을 주장하였다. 통제감의 욕구는 실제로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적절히 통제감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이롭다(Langer & Rodin, 1976).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감을 갖지 못하게 될 때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 및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며(Pittman & Pittman, 1979), 부정적인 자기관, 자존감 및 자신감의 상실, 자기 효능감의 하락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Anderson, 1977).

또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Edwards, 1957; Kendall, Howard, & Hays, 1989; Schwartz, 1986).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개인의 자기가치감이 하락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의 한을 심리학적으로 풀어 말하자면 개인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긍정적 자기가치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

인이 모든 상황에 대해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히 한국인들이 한에 민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한민과 한성열(2007)은 한국사람들의 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에 있어서 한의 문화심리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한국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것이며(국민일보, 2006년 8월 31일자), 이러한 부당한 차별감은 한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한국인들이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남들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객관적 조건 등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문화심리학의 일부 연구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성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적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 등 여러 면에서 강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다는 증거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조궁호, 명정완, 2001; 조궁호, 2002; 정육, 한규석, 2005). 이는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며, 개인주의 문화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들과 유사한 특징이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2004),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심리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을 제안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문화이지만(상호협조적 자기를 갖는 문

화)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한 차이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체성-대상성 자기관이라는 것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지각하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를 가지며,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를 갖는다.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사람은 자신의 지향을 중시하며, 이상적인 자기상(ideal self)에 근거한 자기인식을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주도적 혹은 지배적 위치를 점하려 하며, 자기현시적인 행동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사람은 상대의 지향을 존중하며, 의무적인 자기상(ought self)에 근거한 자기인식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순종적이고 협조적인 측면이 강하며, 자기억제적인 양상을 보인다(이누미야, 2004; 이누미야, 김윤주, 2006).

따라서,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한국인들이 한을 경험하게 되는 조건, 즉 자신의 지향이 무시되고, 이상적 자기상이 손상을 당하며, 자신의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이나 상이한 자기관을 가진 이들에게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한이란 단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욕구좌절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상적 자기에 근거한 자신의 높은 자기가치감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은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상적인 자기가치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한은 주위 사

람들의 존재와 그들과의 비교과정을 통해 더욱 확대, 심화된다(한민, 한성열, 2007). 결국 한이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기관에 근거한 ‘자기가치감(self-worth)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

한(恨)으로서의 교육현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은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부정적 교육현실을 ‘한’으로 볼 수 있는 이유들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입장에서 입시 및 성과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한다. 또한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요구에 의한 외재적 동기에 의해 학습하며 학습에 대한 자기통제,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학업능력의 서열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역시 한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교육현실은 학부모에게 있어서도 한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학부모 역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부모로서의 의무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부재를 경험하며, 타인들의 교육여건 혹은 다른 이들의 자녀의 성취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서 부모인 자신이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인식은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국외로 내보내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한 가족의 붕괴 및 해체로 인해 다시 한을 경험하는 한의 악순환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교육은 개

인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같이 작은 국토와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에 우뚝 선 나라들은 훌륭한 인적자원을 잘 길러내고 활용해 온 나라들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을 통한 질 높은 인적 자원의 확보는 한국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한국 교육의 현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타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교육열은 그러한 점에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교육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제언: 신명나는 교육현장을 위하여

그러면 한국의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의 교육현실을 ‘한’스러운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한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은, 한국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한의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신명을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즉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 모두에게 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은 신명(신바람)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신명이란 무엇인가

한국사람들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때, ‘신명난다’, 혹은 ‘신바람난다’는 말을 쓴다. 신명(혹은 신바람)이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 및 그 정서를 의미한다. 신명난다, 신바람난다는 말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더 바랄나위 없이 기쁘고 충족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민과 한성열(2007)은 기존의 신명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신명경험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우선 신명 경험은 다음과 같은 상태적인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신명은 접신(接神), 혹은 엑스타시에 비유될 만큼 강렬한 정서적 경험이다. 최근 한국사람들의 신명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의 예를 보면, 흥분되고 고양된 정서, 특히 한국 대표팀의 극적 승리 순간에는 기쁨과 환희가 극대화되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정도의 격한 정서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서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갖는다.

둘째, 그러한 정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이된다. 김열규(1982)에 의해 ‘신명의 감염현상’이라 일컬어진 신명의 집단적 전이현상은 일차적으로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전통문화에 기인하며, 그러한 바탕에서 파생된 감정교류방식인 심정교류(최상진, 김기범, 1999)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명상황에서는 일종의 약속된 무질서 상태가 나타나는데, 역시 2002년 월드컵의 거리응원의 예에서 잘 나타난, 일상적인 질서상태와는 다른 이러한 무질서, 혼돈 상태는 평소 억눌린 감정 등이

배출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열규, 1982).

이러한 신명은 한국문화에서 일상의 억눌린 욕구들을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흔히 한국문화를 ‘푸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명의 이러한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명의 또 다른 장점은 잠재력의 극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규태(1991)는 신바람은 흥으로도 나타나고 희열로도 나타나며 눈물로도 나타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 지지 않는 저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사람의 노동력은 $1+1=2$ 가 되지만 신명이 난 사람의 노동력은 $1+1=3$ 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신바람에 주목한 요시카와 료조(吉川 良三, 2001) 역시 신명상태에서는 일정조건만 갖추어지면 ‘평상시의 자기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사의한 힘이 치솟아 오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신명이 갖는 잠재력은 최근 한 기업에서의 ‘신바레이션(Synbaration, 조선일보, 2006, 4, 24)’ 운동과 같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만약, 교육의 현장에서 신명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가장 기쁘고 충족된 기분을 느끼며, 교육자들과 학부모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공감하는 가운데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 신명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신명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신명은 언제 발생하는가

신명은 예전부터 한(恨)과 관련하여 언급되

어 왔다(김열규, 1982; 이어령, 1978; 이규태, 1991 등). 신명은 한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가, 한이 풀리면 신명이 된다 등의 말과 같이 한과 신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한과 신명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명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한 논의는 구체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근 발표된 한민과 한성열(2007)의 연구는 이전까지의 모호한 한과 신명과의 관계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신명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의 직접적 해소’와 ‘한의 간접적 해소’의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신명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명은 한의 직접적 해소로 인해 발생한다. 여기서 ‘한(恨)’이란 자신이 평가하는 자기의 가치(self-worth)에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총칭한다(한민, 한성열, 2007). 최상진(2000)은 한을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내재화되어 체념적 정서로 정착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한민과 한성열(2007)의 논의에서의 한은 그러한 내재화 과정의 포함여부와는 관계없는 보다 일반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즉, 신명이 발생하는 첫 번째 경우는 자기의 가치에 손상을 미친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 자체가 소멸됨으로써 한이 사라지고 신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옥에 갇혀 있던 춘향이에 게 이도령이 나타나거나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는 등, 자기의 가치를 억누르거나 탄압하던 원인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신명을 경험한다.

신명이 발생하는 또 다른 경우는 한의 간접적 해소와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 한의 해소

는 신명경험에 뒤따르는 부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한민(2007)은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식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신명과 예술체험 등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가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명을 한의 간접적 해소와 관련된 신명의 유형으로 꼽고 있다.

한민(2007)에 따르면 신명은 즐거움, 기쁨과 같은 단일한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반추하는 복합적인 2차적 정서 및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며, 표출행동 및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조합되고 극대화되는 감정들을 뜻한다.

첫 번째 유형의 신명이 한의 원인이 소멸하여 발생하는 기쁨 및 한으로 인해 힘들었던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얻어지는 회상적 정서에 중점을 두고 경험된다면, 우리의식의 확인 및 자기표현으로 인한 신명의 경우에는 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표출행동,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소 누적된 부정적인 정서들을 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신명에 도달한다.

그러나 한의 원인 자체가 소멸하여 신명을 느끼게 되는 유형의 신명은 실제로 매우 드물게 경험되며,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는 신명은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신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신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부정적 정서들이 분출되며 일종의 감정적 정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한의 간접적 해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명을 경험한다고 해서 현실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명을 통해 한국인들은 현실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신명은 때로 부정적 현실

을 타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신명은 한으로 대변되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한국인들의 삶의 전략이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과 신명의 관계를 고찰해본다면 현재의 부정적 교육현실에서 신명을 찾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이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고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신명이라면, 현재의 ‘한스러운’ 교육현실에서 교육의 역할과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해답 역시 신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에서 신명으로

그렇다면 한스러운 교육현실에서 신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앞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신명은 첫째, 한이 직접적으로 해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둘째, 한의 원인 자체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신명이 발생하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신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한의 직접적 해소에 의한 신명

첫 번째로 한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신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입시위주, 학업능력의 서열화 등 부정적인 교육현실의 원인이 되는 이유들을 찾아 그것을 완전히 개혁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어 왔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개혁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

려울뿐더러,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 제도가 정착하기까지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새 제도로 인한 상대적인 불평등감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진통을 거친 후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제도가 정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국면의 극적인 반전을 통해 경험되는 한의 직접적 해소에 의한 신명과는 다른 종류의 변화이다. 따라서 부정적 교육현실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신명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교육현실에서 신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안은 제도개선 등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 간접적 해소와 관련된 신명

한민(2007)은 한의 원인의 소멸과 관계없이 신명에 이르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의식의 확인’과 ‘자기가치의 표현’을 들고 있다. 첫째, 우리의식의 확인에 의한 신명이란 전통적으로 명절이나 마을잔치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부정적인 정서 등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한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해소된다. 둘째, 자기가치의 표현에 의한 신명은 주로 악기 연주나 춤 등의 표현행위 중에 발생하는 긍정적 정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관객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감 및 극대화된 표현행동이 뒤따르며 그러한 표현행동 중에 부정적 정서의 해소(한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신명을 말한다.

교육현실의 맥락에서 이러한 신명의 발생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식 및 공감에 의한 신명. 우리의식에 의한 신명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은 우리의식에 의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누적된 부정적인 정서들을 분출하는 것이다. 한민(2007)에 따르면, 신명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은 바로 ‘표현 혹은 분출’이다. 어떤 즐겁고 기쁜 사건이 있었어도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명에 이르기 어렵다. 한의 원인이 소멸됨에 의해서 경험되는 신명의 경우에서도 과거의 억눌렸던 감정들과 회복된 자기가치감 등을 표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며, 자기가치의 표현에 의한 신명에서는 표현행위 그 자체가 신명의 조건이 된다.

여기서 우리의식 혹은 공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표현 혹은 분출’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서로가 서로의 기분과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는 공감에서 시작되는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난장성’이라는 이름의 신명의 중요한 상태적 특질이다(한민, 한성열, 2007).

그렇다면 교육장면에서의 우리의식 혹은 공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같은 처지에서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일 수도 있고, 학생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학부모 및 교사들과의 연대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학생들끼리의 우리의식은 축제나 수학여행,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학습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우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입시제도 및 교육현실이 학생들 사이

의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우리의식을 고취하여 학업에서의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학생들 사이의 우리의식에 기인하는 신명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축제나 수학여행, 동아리활동 등 학업 외적인 측면에서, 입시와 경쟁으로 누적된 평소의 부정적 정서를 배출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는 있으나 학업장면에서의 신명으로 연결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식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육 장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과의 공감이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의 가치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은 학생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부모와 교육자의 가치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크다. 즉 초, 중, 고 교육은 대학입학을 위해 집중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가치를 둔다. 입시지옥을 이겨내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학생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부모 및 사회의 가치에 맞는 직장을 위해 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한 공부에 매달리게 된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몇몇 고시로 대표되는 안정된 직장으로만 쏠리게 되어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전반적인 학문의 기반이 흔들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 및 정체성을 정립할 시기에 외재적인 강요에 의한 교육만을 받아온 학생들은 취업 이후에도 정체성 고민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

(한국경제 9, 19일자)의 원인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니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계속 그곳을 다녀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혹은 계속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 일에서 신명이 나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의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이후의 생활에서도 신명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이 바라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가치들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에 부모와 교육자들이 공감해 주는 데에서 학생들은 신명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치의 표현에 의한 신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치의 표현에 의한 신명. 한의 원인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신명의 유형은 자기가치의 표현에 의한 신명이다. 한민(2007)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치에 의한 신명은 주로 악기 연주나 무용과 같은 예술체험이나 자목적적인 활동 중에 경험되며 Csikszentmihalyi(1975)가 제안한 몰입(flow)과 유사한 양상을 포함한다.

몰입과 이러한 유형의 신명의 차이점은, 몰입이 과제난이도와 숙련도의 함수로 정의되며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유형의 신명은 표현행동 자체에서는 몰입경험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쾌감이 자기의 과거경험에 대한 회상 및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훨씬 역동적으로 경험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한민, 2007). 즉, 몰입이 어떠한 일 자체에 빠져 있

는 일시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신명은 그러한 몰입이 나타나기 위한 선행조건들과 몰입과정에서의 집단적 역학 및 총체적 몰입경험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다. 특히 한국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에 민감한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이누미야, 김운주, 2006)은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자목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타인들 앞에서 표현하는 행위에서도 몰입과 유사한 긍정적 정서경험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에서 그러한 감정은 신명의 감정으로 이해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한 자기표현 행동에서 경험되는 신명은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이 두어지면 ‘공감 및 감정공유’의 과정이 강조되어 집단적 신명으로 화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표현하는 개인적 자기가치에 초점이 두어지면 ‘자기가치의 발견 혹은 확인’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신명경험의 과정은 개인적 과정과 집단적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며, 신명을 경험하는 이가 보다 중시하는 감정에 따라 신명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식 혹은 공감에 의한 신명이 표출행동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관련있다면, 자기표현에 의한 신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표출하게 되는 내용 자체와 관련된다. 즉 자신이 표현해 내야 하는 기량, 능력, 가치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일 때, 그 행동 자체에서 개인적인 신명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신명, 즉 학생의 개

인적 신명을 교육현실에서 일으킬 수 있으면, 학생들이 표출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에 깊숙이 개입하여 학습계획뿐만 아니라 인생계획까지 그들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학업과 삶에서 신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성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 공감해 준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충분히 신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명은 몰입(flow)과 같이 자목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신명을 경험하게 되는 세부적인 원인과는 관계없이 신명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과정은 자기가치의 발견과 주변인들과의 감정공유, 그리고 자기가치를 발견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한민, 2007). 부모와 교사의 일방적인 강요에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발견하고, 부모와 교사 등 주위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지지해 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다 할 때, 신명나는 교육의 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06). *한국인 코드*.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국민일보 (2006, 8, 31). [우리 사회 차별 현주소] (중) “내맘에 안들면 차별” 단순불만 진정 봇물.
- 김열규 (1982). *한국인의 신명*. 서울: 주류.
- 송호근 (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요시카와 로조 (2001). *신바람 한국 가미카제 일본*. 서울: 다락원.
- 이규태 (1991). *한국인의 버릇*. 서울: 신원문화사, 279-281.
- 이어령 (1978). *한국인 재발견*. 서울: 교학사.
- 이종각 (2003). *외국의 교육열 사례: 외국에는 어떤 교육열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국교육개발원.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미숙 (1993). 가족의 가치관 및 교육적 특성이 교육열에 미치는 영향. *가족학논집* 5, 19-42.
- 정순우 (1999). 한국사회 교육열에 대한 역사문화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9(1), 1-16.
- 정 옥,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금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일보 (2006, 4, 24). 신바레이션이 홈플러스 쑥쑥 키운다.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추병식 (1999). 집단순응과 대리만족의 교육열. *교육사회학연구* 9(1), 17-30.
- 한국경제 (2007. 9. 19). 직장인 10명 중 3명은 동반퇴사 경험.
- 한민, 한성열 (2007). 신명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83-103.
- 한민 (2007). 신명의 심리학적 개념화 및 타당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446-451.
- Armbrister R. C. (200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tudent social attribu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29(1), 39-49.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42.
- Edwards, A. L. (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Dryden Press.
- Kendall, P. C., Howard, B. L., & Hays, R. C. (1989). Self-referent speech and psychopathology: The balance of positive and negative think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583-598.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anger, E. J., & Rodin, J. (1976). The effects of choice and enhanced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aged: A field experiment in an institutional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91-198.
- Pittman, N. L., & Pittman, T. S. (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1. 16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16

A cultural psychological suggestion for the educational circumstances of Korea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egative circumstances of Korean education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in terms of cultural psychology. Researcher considered the negative situation as Han(恨) to Korean people and analyzed it with the cultural psychological theories. In Korean culture, Han(恨) could be overcome by Shinmyeong which is known as a Korean uniqu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 According to results of a recent research, Han has been thought that it was the negative feeling from loss of self-worth, and Shinmyeong might be the feeling related with retrieval of self-worth. On the base of discussion about Shinmyeong, several psychological solutions to negative circumstances of Korean education were proposed.

Key words : negative circumstances of Korean education, Han(恨), Shinmyeong